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	 금융감독원
<b>보도</b>		<b>19.5.10(금) 9:30</b>	<b>배포</b>	<b>2019.5.10.(금)</b>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(02-2100-2660)		<b>담 당 자</b>	노 소 영 사무관 (02-2100-2662)	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경 식(02-3145-6700)			민 봉 기 부국장 (02-3145-6702)	
	금투협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 신 동 준(02-2003-9016)			한 재 영 부 장 (02-2003-9200)	

## 제 목 :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개최

### 1 행사 개요

- 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는 5월 10일(금)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'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\* 컨퍼런스'를 개최

\* 어느 한 회원국에서 “패스포트 펀드”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

#### < 컨퍼런스 개요 >

- √(일시·장소) '19.5.10(금) 09:30~13:00,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(1층)  
√(주최) 금융위원회, 금융투자협회 (협조) 금융감독원

-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는 '16.4월 아시아 5개국\*이 “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”를 체결한 이후

\* 한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태국

- 회원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각 회원국 자산운용업계의 제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 간 순차 개최\*해 온 것으로 2019년은 우리나라에서 개최

\* ('17.4월) 일본 → ('17.10월) 태국 → ('18.4월) 호주 → ('18.9월) 뉴질랜드

-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하여 자산운용업계, 유관기관,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,

-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개 회원국 및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읍저버 국가(싱가폴, 대만, 홍콩)의 금융당국에서도 참석하였음

## 2 주요 논의 내용

-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시 직면할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증진하고, 다른 회원국에 펀드를 판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3개의 세션으로 구성
  - ① 제1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·연금실장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및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,
    - 삼일 PwC에서는 5개 회원국의 펀드 과세체계를 비교하여 발표하였음
  - ② 제2세션에서는 일본(JFSA)·호주(ASIC)·뉴질랜드(FMA)·태국(SEC) 금융당국에서 직접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가 자국에서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음
  - ③ 마지막 세션에서는 업계에서 5개 회원국 금융당국에 대해 직접 궁금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음

## 3 향후 계획

- 일본·호주·태국 등 다른 회원국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완비하여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한 만큼,
  - \* 뉴질랜드는 '19.6월경 관련 법·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  - 우리나라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,
  - 경쟁력을 갖춘 우리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

※ '18.6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 중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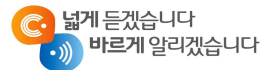
- 동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가 일종의 '여권(Passport)'을 가진 것처럼,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일본·호주 등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됨
-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반 역외 펀드보다 쉽게 등록·판매할 수 있음

<별첨>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